

#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우위와 성장 특성 - 변이할당분석방법을 이용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

김영준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Competitive Advantage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Korea's Tourism Industry

### - Comparative Analysis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by Using Shift-Share Method

Young-Joon Kim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Sang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제무역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발라사 지수와 변이할당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 특성과 경쟁우위 변동 현황을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은 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과 관광산업의 비중 증가 등 외적인 요인에 힘입은 것으로 관광부문 자체의 성장 동인(動因)의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관광부문의 고용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숙박업 등 관광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노동력을 일부 흡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부문의 영세화 진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경쟁우위는 지난 10여년간 완만하게 개선되어 왔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위에 있어 향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내국인 관광을 포함한 관광부문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여행수지로 드러난 관광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지난 10여년간 관광부문의 양적인 성장은 미약했던 반면 국제적인 경쟁우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competitive advantages of Korea's tourism industry compared to other Northeast Asian countries using the Balassa Indices and Shift-Share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growth of Korea's tourism industry over the past decade was due mainly to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expansion of the tourism sector, while the role of growth momentum of the tourism industry itself was insignificant. Employment in Korea's tourism industry has shown relatively higher increasing rates compared to the rates of the total amount of sales and value-adding. This appears to be caused by the decreased absorption of the labor force in the tourism industry due to the overall capacity of job creation. (Ed note: This sentence was unclear. Please check the edits.)The competitive advantage of Korea's tourism industry has been strengthened over the past decade, but it is still inferior to other countries. The travel account balance showed that the economic size of the Chinese tourism sector had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but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sector has been weakened.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size of the Japanese tourism sector has shown sluggish growth, while its competitive advantage has been strengthened significantly.

**Keywords** : Tourism Industry, Tourism GDP, Tourism Employment, Competitive Advantage, Balassa Index, Shift-Share Analysis, Northeast Asian Countries

본 연구는 2019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Young-Joon Kim(SangMyung Univ.)

email: yjnkim@smu.ac.kr

Received November 27, 2019

Revised December 23, 2019

Accepted March 6, 2020

Published March 31, 2020

## 1. 연구 배경

관광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활동 중 가장 선호가 높은 활동으로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소득 중에서 관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도 관광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현재 전 세계 부가가치 생산액(실질 GDP 기준) 및 고용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다[1].

특히 최근에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관광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부진한 고용상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관광산업은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비교역재의 교역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셋째, 관광산업은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경제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가 지닌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관광산업이 지닌 장점과 잠재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과는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여건을 지닌 주변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이하 WTTC)는 매년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이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상기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8년 기준(직접효과 기준) 각각 0.9%, 1.1%로서 세계 평균(3.2%, 3.8%)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의 주변 국가인 일본(2.4%, 1.8%)이나 대만(1.8%, 2.5%)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이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정부지출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의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이다[2].

특히 국가별 관광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는 여행수지(travel account balance)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 들어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5년 여행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된 이후 여행수지 흑자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일본과 대비되는 모습

이다(Fig.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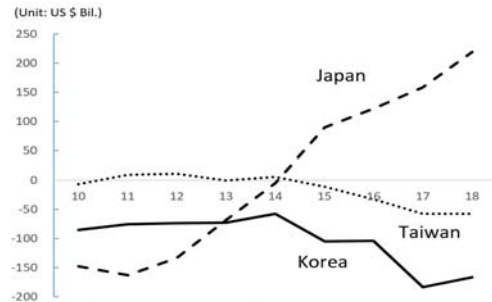


Fig. 1. Trend of Travel Account Balance by Countries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약 20조원(170억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만약 이러한 적자가 해소되어 여행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약 1.1%p, 고용을 22만명 가량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명목 GDP(2018년 1,800조원) 규모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10.8명, 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를 이용하여 추산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우위와 성장 특성이 근래 들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볼 수 있도록 다른 동북아시아 5개국(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와 발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s)의 정도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해 국제무역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버전의 발라사 지수(Balassa Index)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 특성을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기 위해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를 통한 요인 분석 방법의 일종인 변이할당분석방법(Shift-Share Method)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우위와 성장 특성이 근래 들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를 인접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으려는 데 있다.

## 2. 선행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이하 WTO)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관광부문 성장률은 5.2%로 당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3.8%) 보다 더 높았으며, 2018년에도 관광부문 성장률(4.4%)이 세계 경제성장률(3.6%)을 상회하였다. 특히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산업 성장률(7%)이 유럽(5%), 중동(4%), 아프리카(2%) 등 세계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도 가장 빠른 관광시장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들 지역 관광산업이 지닌 잠재력과 성장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밀집된 인구와 높은 소득증가율, 다양한 자연 및 문화 자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교통 기반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세계 관광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할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4-10].

한편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발라사 지수와 변이할당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쟁우위 현황과 성장 특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라사 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또는 경쟁우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것으로 주로 국제무역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11-12]. 국제무역 분야에서 발라사 지수를 이용하여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국제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으나 이를 관광산업 부문에 적용한 국내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발라사 지수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의 국가별 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해외 연구의 사례로는 Algeri et al.의 연구가 있다[13]. 상기한 연구에서는 2000-2013년 기간에 대한 Eurostat 및 UNCTAD 자료를 이용하여 유럽 28개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별 발라사 지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유럽 각국의 관광산업 경쟁우위 현황과 이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바 있다.

다음으로 변이할당분석방법은 일종의 성장회계식을 이용한 성장 요인 분해(factor decomposition) 방법이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연구는 국내외에 상당수 존재한다. 이 중에서 관광산업 부문에 변이할당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산업의 성장 요인과 특성을 분석한 해외 연구로는 Sirakaya et al., Fuchs et al., Toh et al., Yasin et al., Sobral et al. 등이 있다[14-18]. 상기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 국가 내의 특정 지역[14]이나 싱가포르, 포르투갈, 브라질 등 특정 국가의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16-18]인 반면 Fuchs et al.의 연구는 국가별 관광산업을 대륙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한편 변이할당분석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로는 서성원 외, 심원섭·최승묵, 최승묵 등이 있다[19-21]. 이 중에서 서성원 외, 심원섭·최승묵 등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현황을 광역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성장 특성을 분석한 것인 반면 최승묵의 연구는 WTTC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몽골을 포함한 7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광부문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다. 다만 상기한 논문에서는 발라사 지수를 이용한 국가별 경쟁우위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WTTC 자료 외에도 IMF의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자료와 ILO의 취업자 수 자료 및 각국의 실질 GDP 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가별 발라사 지수와 관광부문 GDP 및 종사자수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 관광부문의 경쟁우위와 성장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3. 경쟁우위 분석

이하에서는 발라사 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6개국의 관광부문 경쟁우위 현황과 이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별 발라사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는 IMF에서 제공하는 관광부문 경상수지 통계를 이용하였다[22]. 상기한 관광부문 경상수지에는 레저 및 사업 목적의 여행과 유학·연수 등을 위한 내국인의 해외 지출(debit)과 외국인의 국내 지출(credit)이 모두 고려된다. 다만 대만의 경우는 IMF에서 세부적인 경상수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대만중앙은행(Central Bank of Republic of China)의 자료를 이용하였다[23]. 한편 발라사 지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버전을 모두 계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다. 먼저 Eq. (1)은 고전적인 발라사 지수의 산출식을 나타내는

데 분자는 특정 국가의 서비스부문 전체 수입 중 관광부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모는 모든 국가의 서비스부문 전체 수입 중 관광부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Eq. (1)의 BI지수는 특정 국가의 관광수입 창출역량이 비교 대상 다른 나라들의 평균에 비해 얼마나 더 큰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Eq. (2)의 EBI지수는 상기한 BI지수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수입 측면에서의 BI지수를 지출 측면의 BI지수로 나눈 것이다. 즉 앞서 설명한 BI지수가 특정 국가 관광부문의 상대적인 수입창출 역량을 비교 대상 국가들과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라면, EBI지수는 수입과 지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특정 국가의 관광부문 국제경쟁력(경쟁우위)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라고 볼 수 있다.

$$BI_{ij} = \frac{\frac{EX_{ij}}{\sum_{i=1}^N EX_{ij}}}{\frac{\sum_{j=1}^M EX_{ij}}{\sum_{i=1}^N \sum_{j=1}^M EX_{ij}}} \quad (1)$$

(여기서 EX는 경상수지의 수입(credit)을 의미하며 i는 서비스부문 각 산업, j는 각 국가를 나타냄)

$$EBI_{ij} = \frac{\frac{EX_{ij}}{\sum_{i=1}^N EX_{ij}}}{\frac{\sum_{j=1}^M EX_{ij}}{\sum_{i=1}^N \sum_{j=1}^M EX_{ij}}} / \frac{\frac{IM_{ij}}{\sum_{i=1}^N IM_{ij}}}{\frac{\sum_{j=1}^M IM_{ij}}{\sum_{i=1}^N \sum_{j=1}^M IM_{ij}}} \quad (2)$$

(여기서 EX는 경상수지의 수입(credit), IM은 지출(debit)을 의미하며 i는 서비스부문 각 산업, j는 각 국가를 나타냄)

Fig. 2는 전 세계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구한 동북아시아 6개국 전체의 발라사 지수 BI 및 EBI 값의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Fig. 2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관광부문의 수입창출 역량을 나타내는 BI 지수값은 1을 하회하다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는 꾸준히 1을 상회하고 있어 동북아

시아 지역의 관광수입 창출역량이 근래 들어 세계 평균을 넘어서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EBI 지수값은 2014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2013년 769억달러에서 2014년 1,833억달러로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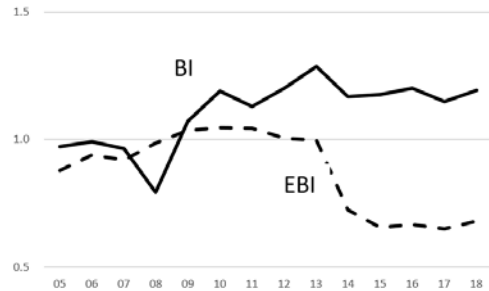


Fig. 2. Trend of Balassa Index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Fig. 3은 동북아시아 6개국의 BI 지수값의 추이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BI 지수값을 통해 동북아시아 각국의 관광부문 수입창출 역량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여행수지를 통해 드러난 국제적인 수입창출 역량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전체 서비스산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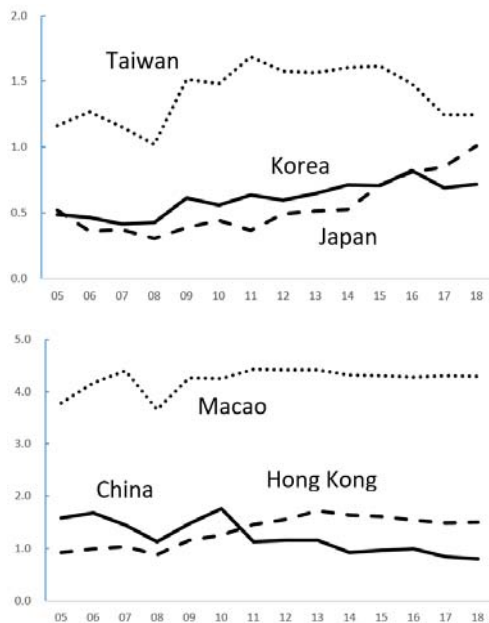


Fig. 3. Trend of BI Index by Countries

에서도 관광부문의 비중과 역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온 반면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근래 들어 상대적으로 관광부문의 역량이 약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BI 지수값은 2005년 0.487에서 2018년 0.717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같은 기간 0.518에서 1.008로 상승하였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586에서 0.802로 하락하였으며 대만의 경우는 2011년까지는 증가세를 이어 왔으나 2011년 이후 들어서는 지수 값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ig. 4는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EBI 지수값의 추이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BI 지수값은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는 2005-2011년 평균 0.538에서 2012-2018년 평균 0.683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부문 대외경쟁력이 완만하나 강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이 관광부문의 대외경쟁력 약화 보다는 관광부문 자체의 규모와 교역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우리나라의 EBI 지수값은 0.623으로 여전히 1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대외경쟁력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근래 들어 관광부문의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강화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관광입국(觀光立國)을 표방하며 지속적·효과적으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해 온 데 힘입은 바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24].

#### 4. 성장 특성 분석

이하에서는 변이할당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6개국 관광산업의 성장 특성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변이할당분석방법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 경제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른 산업 또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 부문의 경제적 변화(또는 성장)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21].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광부문의 성장 요인을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한 부분(전반적 산업구조효과)과 특정 지역의 해당 산업 점유율 변동에 의한 부분(지역할당효과)으로 구분하는 관점에서만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관광부문의 성장 요인을 특정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의한 부분(국가성장효과)과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변동에 의한 부분(지역별 산업구조효과)으로 구분하는 관점에서도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Eq. (3)과 Eq. (4)는 각각 상기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변이할당분석을 위한 식을 보여주고 있다.

Eq. (3)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특정 국가의 관광산업 성장 요인을 어떻게 전반적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Eq. (3)의 첫 번째 괄호는 비교 대상 모든 국가의 전 산업 성장률을 나타내며, 두 번째 괄호는 모든 국가에서의 특정 산업(i)의 성장률과 전 산업 성장률 간의 차이를, 세 번째 괄호는 특정 국가(j)에서의 특정 산업(i)의 성장률과 모든 국가에서의 특정 산업(i)의 성장률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Eq. (3)의 두 번째 괄호는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한 부분인 전반적 산업구조효과를, 세 번째 괄호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 점유율 변동에 의한 부분인 지역할당효과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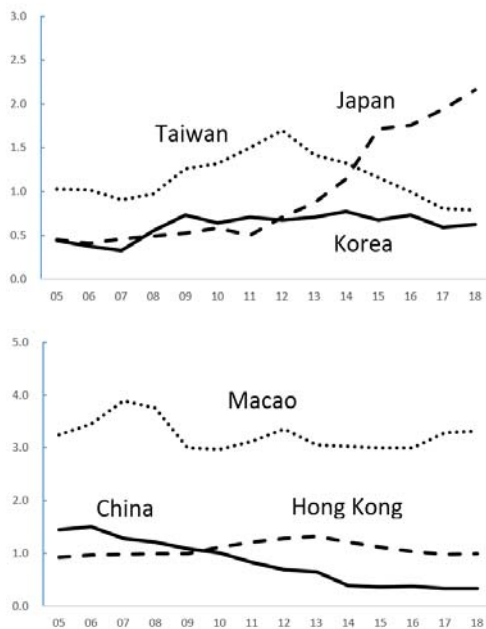


Fig. 4. Trend of EBI Index by Countries

$$G_{ij} = \left( \sum_{i=1}^n \sum_{j=1}^m \alpha_{ij} G_{ij} \right) + \left( \sum_{j=1}^m \alpha_{ij} G_{ij} - \sum_{i=1}^n \sum_{j=1}^m \alpha_{ij} G_{ij} \right) + \left( G_{ij} - \sum_{j=1}^m \alpha_{ij} G_{ij} \right) \quad (3)$$

(여기서  $G_{ij}$ 는 특정 산업  $i$ 의 특정 국가  $j$ 에서의 성장률,  $\alpha_{ij}$ 는 특정 국가( $j$ )의 특정 산업( $i$ )이 비교대상 모든 국가의 모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을 의미)

Eq. (4)는 두 번째 관점에서의 변이할당분석을 위한 식이다. Eq. (4)의 첫 번째 괄호는 비교 대상 모든 국가의 전 산업 성장률을 나타내며, 두 번째 괄호는 특정 국가( $j$ )에서의 전 산업 성장률과 모든 국가에서의 전 산업 성장률 간의 차이를, 세 번째 괄호는 특정 국가( $j$ )에서의 특정 산업( $i$ )의 성장률과 특정 국가( $j$ )에서의 전 산업 성장률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Eq. (3)의 두 번째 괄호는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률과 비교 대상 모든 국가의 전반적인 평균 성장률 간의 차이(국가성장효과)를, 세 번째 괄호는 특정 국가에서 특정 산업의 성장률과 전 산업 성장률 간의 차이(지역별 산업구조효과)를 보여준다.

$$G_{ij} = \left( \sum_{i=1}^n \sum_{j=1}^m \alpha_{ij} G_{ij} \right) + \left( \sum_{i=1}^n \alpha_{ij} G_{ij} - \sum_{i=1}^n \sum_{j=1}^m \alpha_{ij} G_{ij} \right) + \left( G_{ij} - \sum_{i=1}^n \alpha_{ij} G_{ij} \right) \quad (4)$$

(여기서  $G_{ij}$ 는 특정 산업  $i$ 의 특정 국가  $j$ 에서의 성장률,  $\alpha_{ij}$ 는 특정 국가( $j$ )의 특정 산업( $i$ )이 비교대상 모든 국가의 모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을 의미)

상기한 바와 같은 변이할당분석의 기본 전제는 특정 국가의 관광산업 성장의 상당 부분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관광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이나 관광부문의 비중 증가 등 지역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변이할당분석은 이와 같이 다양한 성장요인을 정량적으로 분해하여 봄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성장 특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6개국의 관광산업 성장 요인을 특정 국가의 관광산업 고유의 성장 요인 외에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관광산업 성장에 힘입은 부분이나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한 동북아시아 각 국의 관광부문 실질 GDP 및 종사자 수 등의 자료는 IMF와 ILO에서 제공하는 각 국의 실질 GDP 및 취업자수 자료를 기초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관광산업 기여도를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KCTI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관광산업 기여도 자료의 원본 출처는 WTTC이며, WTTC는 매년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이 해당 국가의 실질 GDP와 고용에 미치는 기여도를 직접효과와 총효과(직접효과에 간접효과를 더한 효과)로 나누어 작성·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효과에 의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25-27].

Table. 1은 Eq. (3)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2011-2018년 기간 중 동북아시아 6개국의 관광부문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National Tourism)을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 효과(World Economy),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동 효과(전반적 산업구조효과, World Industry), 특정 국가의 관광산업 점유율 변동에 의한 효과(지역할당효과, Regional Distribution)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1. Results from Shift-Share Analysis(1) for Real GDP

Nation	National Tourism	World Economy	World Industry	Regional Distribution
Korea	1.84	3.64	1.30	-3.10
China	12.83			7.89
Japan	1.68			-3.25
Taiwan	2.62			-2.32
Hong Kong	3.95			-0.99
Macao	4.36			-0.57

Table. 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기간 중 관광부문의 연평균 실질 GDP 증가율이 1.84%로서 이를 성장 요인별로 분해하여 보면 세계경제 전반의 성장(3.64%p)과 전세계적인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관광부문 비중 증가(1.30%p)에 힘입은 바가 크고 지역할당효과에 의한 부분은 -3.10%p로서 오히려 관광부문의 성장을 제약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위축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지역할당효과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부문 성장이 대체로 전세계적인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관광부문의 비중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관광부문 점유율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Table. 2는 Eq. (3)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을 관광부문의 실질 GDP 성장률 대신에 관광부문의 종사자수 증가율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2018년 기간 중 관광부문의 종사자수 증가율은 5.45%로서 이는 전세계적인 고용증가(1.21%p)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관광부문 고용 비중 증가(0.85%p) 외에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특수한 요인(지역할당효과, 3.39%p)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관광부문 실질 GDP를 통한 성장요인 분석 결과와 일견 대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관광부문 성장이 부가가치 창출 측면(실질 GDP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난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관광부문 사업체의 영세화(零細化)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KCTI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0- 2017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체 수는 14,281개에서 33,089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12.8%)하였으나 같은 기간 이들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5.3% 증가(경상금액 기준)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25].

Table 2. Results from Shift-Share Analysis(1) for Employment

Nation	National Tourism	World Economy	World Industry	Regional Distribution
Korea	5.45	1.21	0.85	3.39
China	1.58			-0.47
Japan	0.99			-1.06
Taiwan	3.91			1.85
Hong Kong	1.93			-0.13
Macao	3.72			1.67

Table. 3은 Eq. (4)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2011-2018년 기간 중 동북아시아 6개국의 관광부문 실질 GDP 성장률(National Tourism)을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 효과(World Economy), 국가별 경제 성장 효과(국가성장효과, National Economy), 특정 국가 내에서

의 산업구조변동 효과(지역별 산업구조효과, Regional Industry)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Table. 3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지역할당효과가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관광부문의 비중이 감소한 국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부문의 성장률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일본의 경우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부문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6-27].

Table 3. Results from Shift-Share Analysis(2) for Real GDP

Nation	National Tourism	World Economy	National Economy	Regional Industry
Korea	1.84	3.64	-0.64	-1.17
China	12.83		3.79	5.40
Japan	1.68		-2.60	0.64
Taiwan	2.62		-1.13	0.10
Hong Kong	3.95		-0.67	0.97
Macao	4.36		0.47	0.25

Table. 4는 Eq. (4)에 따른 변이할당분석을 관광부문의 실질 GDP 성장률 대신에 관광부문의 종사자수 증가율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영세화 진전과 1인당 부가가치 창출 역량의 약화를 시사한 Table. 2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의 고용이 위축되면서 소규모 음식·숙박업 등 관광산업 부문에서 일부 이러한 노동력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28]. 또한 이러한 점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만, 중국, 일본 등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Results from Shift-Share Analysis(2) for Employment

Nation	National Tourism	World Economy	National Economy	Regional Industry
Korea	5.45	1.21	0.04	4.21
China	1.58		-1.07	1.44
Japan	0.99		-0.78	0.57
Taiwan	3.91		-0.11	2.81
Hong Kong	1.93		-0.06	0.78
Macao	3.72		0.82	1.69

### 5. 결론 및 시사점

관광산업은 교통·통신의 발달 및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여가 활동의 선호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지닌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큰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관광부문의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발라사 지수와 변이할당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성장 특성과 경쟁우위 현황을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경쟁우위는 지난 10여년간 완만하게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실질 성장률 1.84%) 하였으나 이는 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동(관광산업의 비중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관광부문 자체의 성장 동인(動因)의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관광부문의 고용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고용 증가율 5.45%)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 역량이 저하되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숙박업 등 관광산업 부문에서 이러한 노동력을 일부 흡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부문의 영세화 진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Fig. 5는 2011-2018년 기간 중 동북아시아 6개국의 경쟁우위와 관광부문 비중의 변화 정도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국가별 경쟁우위의 변화는 앞서 설명한 EBI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관광부문 비중의 변화는 Table. 3의 국가별 관광부문 비중 증가분(지역별 산업구조효과, Regional Industry)을 사용하였다. Fig. 5를 보면 2011-2018년 기간 중 동북아시아 6개국의 관광부문 성장 및 경쟁우위의 변화 방향과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즉 X축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구한 각국의 관광부문 비중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며 Y축은 EBI 지수를 통해 구한 각국 관광산업의 경쟁우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과 일본의 경우가 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림에서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내국인 관광을 포함한 관광부문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여행수지로 드러난 관광부문의 국제경쟁력(경쟁우위)은 오히려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그림에서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일

본의 경우는 관광부문의 양적인 성장은 미약했던 반면 국제적인 경쟁우위는 크게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광부문의 성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국제경쟁력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의 경우는 관광부문의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국제경쟁력도 많이 약화된 모습이며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우리나라에 비해 관광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경쟁우위의 관점에서 보면 홍콩의 경우 경쟁우위가 다소 약화된 반면 마카오는 경쟁우위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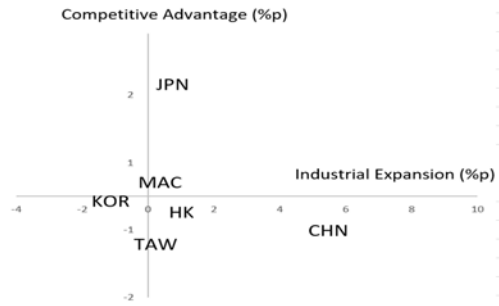


Fig. 5. Growth in Competitive Advantage and Industrial Expansion of Tourism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성장 특성과 국제적인 경쟁우위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요약하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성장은 관광부문 자체의 성장 요인 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 및 국제적인 관광산업 비중 증가 추세 등 외적인 요인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부문의 국제경쟁력도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동북아시아 5개국(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과 비교하여 보면 먼저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어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의 양적인 성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6개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나 자국민의 해외 관광수요가 자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광수요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상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정도도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만과 홍콩의 경우는 관광산업의 경쟁우위가 다소 약화된 반면



마카오의 경우는 경쟁우위가 다소 강화되어 왔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행수지를 통해 살펴 본 일본의 관광산업 경쟁력(경쟁우위)이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엔화 약세라는 환율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존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관광입국(觀光立國)을 표방하며 지속적·효과적으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해 온 데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24]. 본 연구는 발라사 지수와 변이할당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우위와 성장 특성이 근래 들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 이를 인접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는 실제 동북아시아 각국 관광산업의 성과를 통해 드러난 현상을 보여줄 뿐 이러한 현상을 만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eneral Plan for Promotion of Tourism - Life with rest and Tourism for People", *Cabinet Office Paper of National Tourism Council of Korea*, pp.1-3, Dec. 2017.
- [2]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orld Economic Impact Data, WTTC Data Gateway, Available From: <https://www.wttc.org/economic-impact/country-analysis/data-gateway/> (accessed Oct. 17, 2019)
- [3] World Tourism Organization, "International Tourism Highlights", *WTO annual report series 2019 Edition*, pp.1-23, Aug. 2019
- [4] World Tourism Organization, *Tourism 2020 Vision*, Vol. 3 & 7, World Tourism Organization Publishers, 2000, pp.1-668
- [5] T. Winter, "Rethinking Tourism in As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4, No.1, pp.27-44, Jan. 2007.
- [6] M. G. Grosso, M. Leshner, E. Pinali, "Services, Trade Liberalis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Technical report,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No.57*, 2007.
- [7] C. Joan, C. Henderson, "The New Dynamics of Tourism in South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Destination Competitivenes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40, No. 3, pp.379-390, Aug. 2015.
- [8] B. Lew, S. A. Choudhry, "Is the Boom in East Asian Tourism Happening at the Expense of Other Destinations? A Cross-Country Analysis",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49, No.3, pp.335-351, Summer 2015.
- [9] P. Del, M. Pablo-Romero, J. A. Molina, "Tourism and economic growth: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Vol.8, pp.28-41, 2013.
- [10] C. Ron, "Optimistic Outlook", *Asia Travel Trade*, pp.33-35, Mar. 1996.
- [11] B. Balassa, *Competitive Advantage, Trade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Wheatsheaf, New York: Harvester, 1989.
- [12] B. Balassa, M. Noland, "Revealed Competitive Advantag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Vol.4, No.4, pp.8-22, 1989.
- [13] B. Algieri, A. Aquino, M. Succurro, "Inter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s in Tourism: An Eclectic View",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Vol.25, pp.41-52, 2018.
- [14] E. Sirakaya, M. Uysal, L. Toepfer, "Measuring Tourism Performance Using a Shift-Share Analysis: The Case of South Caroli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4, No.2, pp.55-61, 1995.
- [15] M. Fuchs, L. Rijken, M. Peters, K. Weiermair, "Modelling Asian Incoming Tourism: A Shift-Share Approach",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5, No.2, pp.1-10, 2000.
- [16] R. S. Toh, H. Khan, L. L. Lim, "Two-stage Shift-share Analyses of Tourism Arrivals and Arrivals by Purpose of Visit: The Singapore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43, No.1, pp.57-66, 2004.
- [17] M. Yasin, J. Alavi, F. Sobral, J. Lisboa, "A Shift-share Analysis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ynamic of the Portuguese Tourism Market",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Vol.17, No.4, pp.11-22, 2004.
- [18] F. Sobral, A. Peci, G. Souza, "An Analysis of the Dynamics of the Tourism Industry in Brazil: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19, No.6, pp.507-512, 2007.
- [19] S. Seo, Y. Park, K. Binh, "An Analysis of Regional Comparative Advantage of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Using Shift-Share Technique",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24, No.3, pp.161-184, 2012.
- [20] W. Sim, S. Choi, "An Analysis of Regional Tourism Industry Growth Using Shift-Share Analysis and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37, No.5, pp.241-260, 2013.
- [21] S. Choi, "An Analysis of Tourism Growth within North East Asia with Dynamic Shift-Share Analysis",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28, No.4, pp.109-129, 2016.
- [2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Data Access to Macroeconomic & Financial Data,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Statistics (BOP/IIP), Available From:

<http://data.imf.org/regular.aspx?key=62805743>  
(accessed Oct. 21, 2019)

- [23] Central Bank of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Database,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vailable From: <https://cpx.cbc.gov.tw/Tree/TreeSelect?mp=2> (accessed Oct. 21, 2019)
- [24] S. Lee, C. Lee, "A Study on the Policy Plan for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Sector", *Discussion Report of KDI Policy Conference*, 2019.
- [25]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Tourism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 Available From: <https://www.tour.go.kr/> (accessed Oct. 15, 2019)
- [2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Data Access to Macroeconomic & Financial Data, Available From: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 (accessed Oct. 16, 2019)
- [2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ur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s://ilostat.ilo.org/data/> (accessed Oct. 16, 2019)
- [28] S. Kim, "Overview: Employment and Labor Policies in Transition", *Korea Labor Institute (KLI) Working Paper 2017-07*, Oct. 2017.

---

김 영 준(Young-Joon)

[정회원]



- 2010년 9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1997년 1월 ~ 2011년 7월: 한국은행 과장
- 2011년 7월 ~ 2012년 2월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2012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관심분야〉

국제경제, 경제성장